

모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 동반성장 : 토론*

최 정 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지순 교수의 녹색동반성장 논문은 경제학자로서 항상 고민했던 사항들을 폭넓은 범위에서 매우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이상향을 건설하기를 원하며, 과연 그런 이상향의 건설이 가능한지 하는 의문을 가진다. 이 논문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그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도 왜 그 길이 그렇게 어려우며 그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많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그 목표의 달성이 어려운가? 또 그 목표를 달성시켜줄 주체는 누구인가?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생략한 것 같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지순 교수는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개혁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옳다고 생각한다. 변화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화는 항상 이해대립의 조정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변화를 추구하면 기존의 이해대립관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대립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의 이해대립관계가 새로운 이해대립관계로 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

인간사회는 복잡한 이해대립관계로 얽혀 있다. 변화를 통해 이해대립관계가 바뀌면 이익을 누

* 본 원고는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개최된 한국경제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201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2012. 2. 21(화), 연세대학교 대우관 본관 지하 1층 각당헌), 제1전체회의 「대내외 경제환경의 대전환과 한국경제의 진로」에서 발표자 이지순 교수의 논문(모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 동반성장)에 대한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임.

리는 측이 있는 반면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측이 있기 마련이다. 이때 손해를 보는 측에서는 강하게 저항한다. 변화를 통해 모두가 이익을 본다고 해도 이익을 적게 보는 측에서는 또한 저항을 하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신념이나 철학 때문에 변화에 저항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순조롭고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는 변화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사회는 자기뚝 챙기기에 의한 사회갈등으로 영일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사회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변화도 추구할 수 없고 변화가 사회를 개선할 수도 없다.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논문은 시장이 이해관계의 조정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전제해 놓은 것 같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이었다는 데 거의 의의가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시장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데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과거와 같이 경제규모가 작았을 때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경제규모도 커지고 국제화가 폭넓게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제는 시장에 맡겨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시장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시장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경제의 각 분야에 힘의 집중과 힘의 남용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힘의 집중과 힘의 남용은 시장의 적이다. 집중된 힘이 시장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이 힘은 시장을 조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틀과 규칙을 만드는 정부까지 포위하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장은 이해대립관계의 변화를 조정해 낼 수 없다. 힘을 가진 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는 항상 불안하고 투쟁만 있고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날 시장이란 자연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다. 정부가 만드는 제도와 규제의 틀 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현상일 뿐이다. 그런데 시장 내에 존재하는 우세한 힘이 제도와 규제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설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시장 자체를 자기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운용해 나가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재벌경제 현상과 심각한 양극화 현상은 바로 이런 상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시장은 시장 내의 큰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장이다. 이런 시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시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힘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소수 재벌이고, 이들은 항상 그 힘을 남용하고 있다. 이 힘은 입법,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의 관료까지 금력으로 포위해 나가고 있다. 이제는 언론조차도 재벌의 포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시장에 맡겨두면 재벌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재벌과 대립되는 측은 항상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란 힘의 균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그것은 이미 시장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재벌에 의한 일

방독주 체제인 한국시장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오늘날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과거처럼 다시 정부가 나서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제 우리경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 맡길 수도 없고, 정부가 해낼 수도 없다. 시장에도 맡길 수 없고 정부에도 맡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제대로 된 시장을 갖추는 것이다. 시장을 조작하는 집중된 힘을 해소하고, 그 힘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틀을 만들어야 한다. 말하자면 참된 시장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반 정책과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정책과 수단들이 시장을 통해 그 효과를 발휘하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 논의가 뜨거운 소위 말하는 재벌개혁은 정상적인 시장을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재벌개혁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